

김홍걸·소병철, 민주당 광주 전략공천설 왜 나오나?

중앙당 경쟁력 조사에서 후보군 올라 '관심 집중'

대선 공신·검찰 개혁 상징성…유권자 기대 부합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광주 전략 공천설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당 소속 후보들의 경쟁력 조사에서 김홍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소병철 순천 대석좌교수 등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길 민화협 의장은 최근 잇단 광주 행보로 전략공천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평소 지역 정치행사에 모습을 잘 비치지 않았던 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료보건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서정성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다음날은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총

선 출마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구 동교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을 맡아 호남의 반문정서를 누그러트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 충장로 유세에서 많은 군중이 밀집한 가운데 당시 문재인 후보와 포옹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지를 유도한 모습은 지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 속에서도 자신을 확고하게 자리해 준 김 의장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고양시정(일산서구)을 비롯 지난해 광주 동



남을과 목포지역에서도 경쟁력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돌리는 등 김 의장에 대한 공천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 나간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힘들든 쉬운 곳이든 상관없다. 당이 원하는 곳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는 목포보다는 여당 협력 의원 다수가 공석인 광주 출마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소 교수는 지난 5일 민주당의 인재영입 인사로 발표되면서 순천 전략공천 소문이



돌았다. 그가 순천 출신임을 감안하고 그 지역이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분구 가능성에 제기돼 주목이 더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 교수 영입을 발표하기 전 광주 한 지역구에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이 아닌 광주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소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함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농협대와 순천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왔다.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이나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청사진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타 지역보다 높아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그가 어느 곳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4년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완파하면서 광주전남 지역구 상당수가 비어있는 점이 상대적으로 지도부의 입맛에 따른 공천이 쉽다는 가정이 나온다"며 "하지만 역대 광주시장 선거와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인한 번발과 침체한 결과는 중앙당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석 기자

보수통합 '혁통위' 첫 회의…“자문기구” “광화문소외” 이견 분출

“국민들, 도로새누리당 원하지 않아”



박형준 혁통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수 통합'을 목표로 자유한국당·새로

운보수당 등과 보수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첫 회의가 14일 열렸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장에서 열린 혁통위 첫 회의에서 지상욱 새보수당 의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이 애쓰신 것을 알지만 백지상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공식명칭과 역할, 기능, 내용 등 대해서 논의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혁통위에 대해 "보수통합의 촉매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라고 생각한다"며 혁대해석을 경계하며 "혁통위와 한국당과의 대화와 별개다. 우리 입장에서 혁신 통합의 대상은 한

국당뿐이고, 시민단체가 우리의 통합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정경모 국민의소리 창당준비위원장은 "통합은 광화문 광장의 민심이고 국민들은 보수통합이 '도로새누리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좌파는 촛불 민심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지만 보수 우파는 광화문 광장의 힘을 빌려쓰려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날 혁신적인 보수통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정운천 새보수당 의원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받아들여) 한국당이 보수 6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원들이 그대로 참아내겠느냐"며 "그건 유승민 의원부터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까스로 보수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개혁 공천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정파가 통합하면 지분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민주당처럼) 과감히 물같이 공천을 하는 변화된 공천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 나눠먹기를 한 정당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합이 되더라도 사분오열이고, 이언주·이정현 의원까지 하면 사분칠열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공관위 “‘문재인 청와대’ 이력 허용 여부, 중앙당 선관위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총선을 90여 일 앞둔 14일 첫 상견례 자리를 기졌다.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청와대' 이력 포함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위원장 윤혜영)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18명의 내·외부 위원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라가 한 발 더 전진할지, 후퇴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보한 셈이니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라가 한 발 더 전진할지, 후퇴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보한 셈이니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위원들과 대량적인 일정을 공유하고 부분별 소위 구성 등 실무적인 현안과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마쳤다.

공관위는 지역구 공천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비례대표 공천을 맡을 공관위도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공관위는 국민공천심사단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문재인 청와대' 이력 활용 여부에 대

해서는 "경선 때 어떻게 쓸 것인지 문제

이니 최종 결정은 당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공관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위 20% 평가 의원의 공개 여부에도 "결정되지 않았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유했다"고 밝혔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